

# 崔忠獻政權의 軍事的 基盤

- 京軍 · 都房 · 別抄軍을 중심으로 -

金 大 中

(전쟁기념관 학예연구원)

1. 머 리 말
2. 京軍과 首都 防禦
3. 都房과 警護의 強化
4. 別抄軍과 地域 防禦
5. 맺 음 말

## 1. 머 리 말

崔忠獻의 집권은 李義旼 勢力을 제거함으로써 이루어졌다.<sup>1)</sup> 그는 경군을 비롯한 많은 병력을 동원하여 이의민 정권을 무너뜨렸다. 집권과정에서 군사적 문제가 중요했던 만큼 최충헌은 집권후에도 군사적 기반을 다지는데

1) 최충헌정권의 성립 배경에 대해서는 金大中, 「崔忠獻政權의 成立 背景 -崔忠獻과 李義旼의 관계 변화와 관련하여-」, 『震檀學報』 93, 2002. 6. 참조할 것.

박차를 가하였다. 집권 직후에 그는 경군의 지휘관들을 대거 축출 내지는 귀양보내고 자신의 심복을 중심으로 재편하였다. 경군을 장악하는데 주력한 것이다. 兵權의 장악은 신변의 보호는 물론이고 치안과 국방 모두에 있어 중요한 일이었다. 최충현이 그의 군사적 기반을 확고히 하고자 했던 까닭은 여기에 있었다.

그러나 이제까지의 연구에서는 그가 정권의 연명을 위해 門客이라든가 私兵을 강화시키기 위해 국군인 경군을 약하게 만들었다고 하였다.<sup>2)</sup> 그것은 관군, 즉 2軍 6衛의 京軍 가운데 날래고 용감한 병력을 차출하여 그의 문객에 충당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설명은 아래의 사료에 기인한 것이었다.

A. 때에 장수를 보내 거란병을 막게 하였는데 날래고 용감한 자는 모두 충현 부자의 문객이었으므로 관군은 파리하고 약하여 기히 쓸만하지 못하였다.<sup>3)</sup>

이 사료가 전해주는 事實은 기존 연구자의 解釋을 뒷받침해 주기에 무리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이 사료에 대한 해석은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주지하듯이, 『高麗史』에는 조선 초기의 史官의 입장이 반영되어 있다. 崔忠獻은 史官들에 의해 叛逆으로 분류되었다는 점을 지나쳐서는 안된다.

2) 오영선은 거란과의 전쟁에서 최충현의 국방에 대한 태도도 문제가 되었지만, 전쟁 중에도 가병을 강화하여 자신의 신변만을 강화하여 결국 국방의 약화를 초래하였다고 보았다. 오영선, 「최씨집권기 정권의 기반과 정치운영」, 『역사와 현실』 17, 한국역사연구회, 1995, 70쪽. 김당택도 이러한 인식선상에서 사료를 보고 있는 듯 하다(『崔氏政權과 그 軍事的 基盤-都房·夜別抄·神義軍 조직의 政治的 背景-』, 『高麗武人政權研究』, 새문사, 1987, 179쪽). 김당택은 관군이 약한 반면 최충현의 문객이 강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관군 가운데 驍勇者를 최충현이 都房에 招致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하였다. 최충현이 관군에서 차출한 문객 가운데는 도방의 구성원이 된 자도 있었을 것이라는 이야기다. 최충현이 도방을 설치한 것이 자신의 신변호위를 강화하기 위함이었을 것이다(김당택, 위의 글, 178쪽).

3) 時遣將禦契丹兵 驍勇者 皆忠獻父子門客 官軍 羸弱不可用(『高麗史』 권129, 崔忠獻傳).

관군에서 힘있는 자들을 그의 문객으로 차출한 사실은 사관들에게 분명 반역 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 사안이었다.

그러나 최충헌의 문객 강화가 경군의 약화를 초래하여 고려의 몰락을 부른다면, 그의 집권은 그에게서조차 의미가 없는 일이 될 것이다. 최충헌은 경군을 개편하여 京軍 이외에도 都房과 別抄軍의 운용을 통하여 치안과 국방의 문제를 해결해 나갔다. 그런데 이제까지의 연구들은 이 같은 점을 지나치고 있다. 필자가 최충헌 정권의 군사적 기반에 대해서 검토해 보려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먼저 경군을 어떻게 운용하였을까 하는 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무신란이 무반 및 군인층의 불만이 작용하여 일어났고, 최충헌은 그러한 불만을 누구보다도 잘 파악하고 있던 인물이었다는 점에서 그가 수도 방어와 관련하여 경군을 어떻게 운용하였을까 궁금하다. 다음은 그가 門客을 비롯한 私兵들을 강화시켜 일선 경호병력을 증대시킨 사실에 주목하려 한다. 이 문제는 자연히 都房의 설치와 관련하여 논의될 것이다. 도방은 최충헌정권의 치안과 국방과 관련하여 논의될 것이다. 마지막은 별초군에 대해서 검토할 것이다. 최충헌은 그 자신이 별초군으로 나간 것이 정치적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던 인물이다. 그의 이러한 경험은 집권 후 군사편성에 반영되었고 국방 문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었다.

## 2. 京軍과 首都 防禦

최충헌 집권 이후 군사조직과 병제 운용의 기본적인 틀은 어떠한 변화가 있었을까. 종래의 제도적 원칙과 실행상의 관행은 기본적으로 변화 없이 그대로 지속되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주지하다시피, 고려에는 중앙에 2군 6위로 총칭되는 경군 조직이 있었고 전방지대인 양계지방에는 州鎮軍이라 불리는 군사조직이 있었다. 2군 6위의 편제병력은 4만 5천이었는데 이들은

수도인 개경에 거주하면서 직업적으로 그리고 세습적으로 군역에 종사하는 軍班氏族이었다. 경군 소속의 군인이 하는 군복무의 내용은 대개 도성수비, 왕의 경호, 군사훈련, 작업, 그리고 양계 주진군에서의 防戍 등이었다. 이들 경군에게는 병역에 대한 일정한 반대급부 제도가 있었다. 바로 軍人田 그것이었다. 다만 관리의 가렴주구로 인한 병제 일반의 내적 허구화 과정은 별다른 개선 없이 진행되고 있었다. 최충현이 집권 직후 명종에게 올린 봉사10조 가운데 3조에서도 이 점을 알 수 있다.

B. 선왕이 토전을 제정하였는데 공전을 제외하고는 그 신민에게 내려준 것이 각각 차등이 있었는데, 관직에 있는 자가 탐도하여 공사전을 빼앗아 이를 검병하였습니다. 일가의 비옥한 토전이 주에 차고 군에 넘치므로 나라의 부세가 삭감되고 군사의 것이 결핍하게 되었으니 오직 폐하께서는 유사에게 명하여 명문서를 모아 증험하여 무릇 빼앗긴 것은 모두 본래의 주인에게 돌려주게 하소서<sup>4)</sup>

사료 B는 최충현 집권 무렵 군인전이 부족하였던 사정을 전하고 있다. 군인전의 부족은 토지제도나 조세제도 자체가 가진 모순 때문이 아니라 ‘在位者’, 즉 그것을 운영해오던 관리들의 불법적인 행위에 있었다.<sup>5)</sup> 무인 집권기에 권세가들 또는 “姦詰한 吏民들”<sup>6)</sup>에 의한 군인전의 奪占 현상은 더욱 성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충현 집권 이후에도 경군 조직은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었다. 국방을 맡고있는 경군의 운용은 불가피하였기 때문이었다. 따라

4) 先王制土田 除公田外 其賜臣民 各有差 在位者貪鄙 奪公私田 兼有之矣 一家膏沃 彌州跨郡 使邦賦削 而軍士缺 惟陛下 勅有司 會驗公文 凡所見奪 悉以還本(『高麗史』 권129, 崔忠獻傳).

5) 최충현이 언급한 在位者는 이의민정권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가리킨다(崔軫煥, 앞의 논문, 69~70쪽 참조).

6) 『高麗史』 권78, 食貨1 田制 明宗 18년 3월조.

서 최충현은 경군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었다.<sup>7)</sup> 경군을 움직이는 병권은 국왕에게 있다고는 하지만, 실권은 최충현에게 있었기 때문이다. 최충현이 경군의 상급무인들을 자기 계열의 사람들로 개편해 갔던 사실도 그가 병권의 실질적인 행사를 위한 포석이었다. 아래의 기록을 살펴보자.

C. 최충현이 군사 천여명을 거느리고 고달관을 지나 광화문에 이르러 문지기에게 알리기를, “충수가 내일 아침에 난을 일으키고자 하므로 내가 장차 사직을 호위하려 하니 빨리 이를 왕의 처소에 아뢰이라”고 하였다. 문지기가 주문하니 왕이 크게 놀라서 즉시 명하여 문을 열고 이를 들어 구정에 둔치게 하고 또 무기고의 병기를 내어 금군에게 주어 대비하게 하니 제위의 장군도 또한 군사를 거느리고 다투어 왔다.<sup>8)</sup>

D. 때에 최충현의 족인인 상장군 김약진과 최우의 장인인 지주 정숙침이 중방에 있어 급변을 듣고 안으로 들어오니 최충현이 의지하여 나갔다.<sup>9)</sup>

사료 C에서 우리는 최충현이 동생 최충수를 제거하기 위하여 무기고의 병기를 내어 禁軍에게 주어 대비하게 하니, 諸衛 그러니까 6衛의 장군들이 군사들을 이끌고 최충현에게 다투어 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6위의 경군은 개경 내에 상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순식간에 병력 집결이 가능하였

7) 경군의 필요성은 崔怡에 이어 崔沆, 崔嬪에 이르기까지 계속 되었다. 崔瑀(怡)가 私田 7백여 결을 “제위의 散員과 校衛房에 소속시켜 인심을 수습하였다”(『高麗史節要』 권15, 高宗 14년 8월)거나 “제위 軍士들과 開城의 병사들을 진휼하였다”(『高麗史節要』 권17, 高宗 46년 정월) 등의 여러 기록이 있다. 그런데 崔嬪政權을 전복시키는데 경군이 가담한다. 金俊, 柳璣이 이끄는 정변에 2軍의 하나인 鷹揚軍 上將軍 朴成梓가 가담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金大中, 『崔嬪政權의 武力基盤 解體와 沒落』, 『朴性鳳教授回甲紀念史學論叢』, 1987 참조.

8) 忠獻率兵 千餘由高達坂 至廣化門 告門者曰 忠粹明朝欲作亂 吾將衛社稷 亟以此達王所 門者 以聞王大驚 卽命開門納之 使屯於毬庭 又發武庫 兵仗授禁軍 以備諸衛將軍 亦率兵爭赴 (『高麗史』 권129, 崔忠獻傳).

9) 時 (崔)忠獻族人 上將軍金躍珍 (崔)瑀舅知奏鄭叔瞻 在重房 聞變卽入內 扶忠獻以出(『高麗史節要』 권14, 熙宗 7년 12월).

다고 보인다. 최충헌 또한 그 군사력을 동원하여 집권하였던 것이다. 최충헌이 명종26년(1196) 쿠데타를 일으켜 집권한 직후 곧바로 경군의 지휘관들을 교체해 갔다. 이의민을 따랐다고 보이는 上將軍 吉仁·康濟·文得呂, 大將軍 李景儒·崔文清 등을 제거하였다. 上將軍 周光美, 大將軍 金愈信·權衍 등도 죽였다.<sup>10)</sup> 그리고 명종 27년(1197)에 上將軍 高安祐, 大將軍 白富公, 親從將軍 周元迪 등을 영남으로 귀양보냈다.<sup>11)</sup>

경군은 국가의 국방을 맡는 군사력이었다. 국방이 허물어진다면 최충헌의 정권의 존립기반도 상실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일이었다.<sup>12)</sup> 따라서 경군의 최고 지휘관을 자신의 사람들로 배치하는 일이 중요했던 것이다. 사료 D는 최충헌 계열이 上·大將軍에 올라 重房<sup>13)</sup>에 있었던 사실이 확인된다. 희종7년에 최충헌이 살해될 위기에 처했을 때, 그를 구해준 것은 上將軍 金躍珍과 최이의 장인이었던 知奏 鄭叔瞻이었다. 상장군 김약진은 族人이었다. 정숙첨도 최이의 장인이었으니, 최충헌과는 사돈사이였다.<sup>14)</sup> 정숙첨은 고종4년(1217) 거란이 고려를 침입하였을 때, 최충헌이 中軍元帥로 파견<sup>15)</sup>하였을 만큼 가까운 사이였다.

또 최충헌의 심복으로는 隊正에서 승진을 거듭하여 大將軍에 이른 崔俊文이 있다. 그는 興海의 貢生이었는데 최충헌이 奴처럼 부렸다고 한다. 그가 대정에 임명되었던 것은 최충헌의 심복으로서 역할을 다하였기 때문

10) 『高麗史節要』 권13, 明宗 26년 4월.

11) 『高麗史節要』 권13, 明宗 27년 9월.

12) Shultz는 崔氏가가 거느린 부대를 家兵, 都房, 夜別抄로 이해하였다(Shultz, *Generals and Scholars*, 2000, 58~65쪽 참조).

13) 중방은 상·대장군의 합의기구이면서 제도를 지칭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때로는 官衙를 지칭하기도 한다(金大中, 『高麗前期 重房體制的 成立』, 『國史館論叢』 61, 1995).

14) 鄭叔瞻은 최충헌과 사돈지간으로 출세를 거듭하다가 從軍僧의 최충헌 살해에 연루되어 河東에 유배되었다. 그는 사위 최이의 힘에 입어 죽음을 모면한 것이다. 그의子是 鄭晏이었는데, 정안은 崔沆의 집권과 아울러 知門下省事에 오른 후 參知政事를 역임하였다(『高麗史』 권100, 鄭世裕傳 附 晏傳).

15) 『高麗史』 권100, 鄭世裕傳 附叔瞻傳.

이었고, 최충헌도 그런 최준문을 총애하였다. 또 최충헌 계열의 인물로 上將軍 池允深·將軍 柳松節·郎將 金德明이 있었다.<sup>16)</sup> 이들은 최충헌의 右翼이었다. 한마디로 최충헌은 경군의 주요직에 자신의 계열을 배치해 나갔다.

최충헌은 병기의 소지 여부의 결정권도 가지고 있었다. 용호군의 중미가 병기를 소지하고 최충헌이 파견했다고 사칭하여 은백을 거둔 사건이 발생하자 최충헌은 즉각 병기 소지를 금하였다.<sup>17)</sup> 최충헌이 경군을 어떻게 운용하고 있었을까 아래 기록을 검토하여 보자.

E-1 최충헌이 일찍이 스스로 나라가 부유하고 군사가 강하다 하여 매번 변방의 보고가 있으면 문득 꾸짖기를, “어찌 작은 일로써 역마를 번거롭게 하고 조정을 놀라게 하느냐” 하고 문득 보고한 자를 귀양보내니 변방의 장수들이 헤이해져서 말하기를, “반드시 적병이 두 세 성을 함락시키기를 기다린 다음에야 가히 급히 보고할 것이다”고 하였다.<sup>18)</sup>

-2 때에 장수를 보내 거란병을 막게 하였는데 날래고 용감한 자는 모두 충헌 부자의 문객이었으므로 관군은 파리하고 약하여 가히 쓸만하지 못하였다.<sup>19)</sup>

최충헌은 당시 고려의 국방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 사

- 16) 初(崔)忠獻 有婢曰桐花 有姿色 里人多通 忠獻亦嘗私之 一日 戲曰 汝以誰爲適夫耶 婢以興海貢生崔俊文 畜於家 奴使之 遂補隊正 日見寵任 凡請謁者 皆附 累遷至大將軍 又於忠獻家側 大營私第 交結勇士 與上將軍池允深·將軍柳松節·郎將金德明 爲忠獻右翼(『高麗史節要』 권14, 高宗 6년 9월).
- 17) 龍虎軍 仲美 詐稱忠獻所遣 持兵往鳳州 斂取銀帛 驛輸于家 有人 執以告忠獻 梟市三日 仍禁內外持兵者(『高麗史節要』 권14, 神宗 5년 3월조).
- 18) 忠獻 嘗自謂 國富兵強 每有邊報 輒罵曰 何以小事 煩驛騎 驚朝廷 輒流告者 邊將解体曰 必待敵兵陷兩三城 然後乃可飛報至是契丹兵入寇 京城無備 人情恟懼 皆怨忠獻(『高麗史』 권129, 崔忠獻傳).
- 19) 『高麗史』 권129, 崔忠獻傳.

료 E-1은 국방의 財源이랄 수 있는 國富 정도와 병력의 실태에 대한 최충현의 생각을 알려주고 있다. 그의 고려 국방에 대한 생각은 ‘國富·兵彊’이란 표현으로 집약되어 있다. 이 함축된 표현으로 미루어 보아 최충현은 변방에 근무한 군인들에게 國이 富해지기 위해서는 역마를 번거롭게 하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다. 그러기 위해서는 작은 일에 대해서는 兵이 스스로 해결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가 변방의 사소한 보고에 대해서 “역마를 번거롭게 한다”는 판단을 내렸던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최충현의 판단은 결국 주진의 장수들의 등을 돌리게 하였다. 주진의 장수들이 “반드시 적병이 2, 3성을 함락시키기를 기다린 다음에야 급히 보고할 것이다”라고 한 기록이 이를 말해 준다.

E-1 사료에 따르면, 거란병이 고려를 침략하였을 때 경성에 방비가 없었고, 모두 충현을 원망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이 사료는 사태를 다소 과장되게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 거란이 고려를 침구하였을 때, 과연 수도 개경이 무방비 상태였을까. 방어의 주력군이 경군이든 최충현의 사병 집단이든 간에 수도 방어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쉽게 납득되질 않는다. 국가가 없는 집권은 사실상 무의미해진다는 사실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사료 E-2는 전쟁 중에도 최충현은 家兵을 강화하여 신변의 안전만을 추구하고 국방문제에는 안중에도 없었다고 하였다.<sup>20)</sup> 그러나 이 사료는 최충현이 관군에서 문책을 충당한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해서 최충현이 관군이 약해지기를 원했거나 국방을 소홀히 하려했던 것은 아니라고 본다. 최충현이 거란의 침략에 장수를 보냈던 것도(E-2) 즉각 대응책의 하나였다고 볼 수 있다. 거란의 침입에 대해 최충현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조처를 취했는지는 다음의 사료에서 알 수 있다.

F 병자년(고종3, 1216) 가을에 거란의 도적들이 변방을 침범한 뒤 점점 들어와 서해와 춘추계를 침입하고, 다시 동북쪽의 성보를 잠식하게 되니

20) 오영선, 앞의 논문.



형세가 급하게 되었다. 공이 군사들이 호위한 가운데 앉아서 □□□□ 군사를 일으키게 하고 장수를 파견하면서, 혹은 3군으로 혹은 5군으로 혹은 행영으로 삼게 하였는데 그 움직임이 일의 기세와 부합하여 능히 오랑캐를 당멸하게 하였다.<sup>21)</sup>

사료 F에 의하면, 고종 3년 거란이 침입한<sup>22)</sup> 루트는 변방을 거쳐 서해 춘주, 다시 동북의 城堡에 이르렀다. 상황이 위급하게 되자 최충헌은 군사를 일으키고 장수를 파견하였다고 되어 있다. 그는 行營을 三軍 혹은 五軍으로<sup>23)</sup> 이루어 거란을 물리쳤다. 최충헌은 정숙첨을 行營元帥로 삼아 5領 즉 5천명의 軍馬를 거느리고 거란군을 막게 하였다.<sup>24)</sup> 그는 또 京都에 사

21) 越自丙子秋 丹寇犯邊漸侵入于 西海春州界 復蠶食于東北城堡 勢轉危急 公坐擁兵□□□□ 使 發軍遣將 或爲三軍 或爲五軍 或爲行營 動合事機 能使虜寇蕩滅 上大加歎賞 擬於休 □一體 賜之國姓 命付宗(『崔忠獻 墓誌銘』). ( )안의 수자는 묘지명의 행수이다. 최충헌 묘지명 역주에 대해서는 김용선, 『역주 고려묘지명집성』(상), 한림대 아시아문화연구소, 2001, 516~525쪽 참조.

22) 金이 몽고에게 쫓겨서 서울을 연경(北京)에서 汴京(開封)으로 옮길 즈음에 거란의 遺族들이 滿洲지역에서 일어나 金에 叛旗를 들었다. 浦鮮萬奴는 間島에 東眞國을, 耶律留哥는 咸平(開原)을 중심으로 遼를 세웠다. 遼王 耶律留哥의 계통의 金山王子와 金始王子가 河朔의 백성을 위협하여 遼東에 大遼收國을 세워 天成이라 建元하였다. 고종 3년(1216) 몽고군에게 쫓기게 되면서 金山의 指揮를 받으며 고려에 군량을 제공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고려가 거절하자 침입하였던 것이다. 이들은 압록강을 건너 寧·朔 등의 鎮을 거쳐 義·靜·朔·昌·雲·燕州를 지나 남쪽으로 멀리 原州·堤川에까지 들어 왔다. 이들은 金就礪 등에게 패하여 북상하여 江東城에 依據하였다가 고종6년(1219)에 고려와 몽고의 연합군에게 함락하여 모두 양국의 포로가 되고 말았다(李基白, 『高麗史 兵志 譯註』 一, 高麗史研究會, 1969, 80~81쪽과 『高麗史』 권103, 金就礪傳 참조).

23) 고려의 5군은 前軍·左軍·右軍·中軍·後軍으로 평상시의 군사조직이 아니라 전투에 동원하기 위한 編制였다. 평상시에는 편제상으로는 존재하고 거기에 基幹要員들을 배치하고 있다가, 非常時가 되면 元帥·副元帥 및 各軍兵馬使 등의 指揮體系가 이루어지고 아울러 6위의 中央軍과 지방의 主鎮軍 등이 徵發 配屬되어 출동했던 것으로 짐작된다(李基白, 『高麗軍役考』, 『高麗兵制史研究』, 1968, 136~138쪽). 5군에 편제된 조직에 대해서는 『高麗史』 권81, 兵志1 五軍 條 참조). 3군은 전군과 후군이 빠진 좌군·우군·중군을 말한다(李基白, 『高麗史 兵志 譯註』 一, 77쪽 참조). 고려가 5군체제에서 3군으로 고치자는 논의는 의종 3년(1149) 8월에 있었다(『高麗史』 권81, 兵志1 의종3년 8월조).

24) 高宗三年 十月 以鄭淑瞻爲行營元帥 率五領軍馬 二禦丹賊 又括京島人 不論職之有馬 凡可

는 사람을 끌어모으는데 관직의 유무를 가리지 않고 무릇 중군할 수 있는 자는 모두 部伍에 속하게 하였다.<sup>25)</sup> 승도를 뽑아 군사 수백을 만들기도 하였다고 전한다.<sup>26)</sup> 최충현의 거란에 대한 방어책이 매우 적극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최충현의 적극적인 거란 방어책은 국정에도 반영되었다고 보여진다. 宰樞와 重房에서 高宗에게 태조의 후에 및 문과출신을 가리지 말고 모두 군에 충당하자는 건의가 나오게 되었으며, 고종도 이 의견을 따랐다.<sup>27)</sup>

실제 거란의 고려 침략에 대해 최충은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대응에 나섰다. 최충현은 거란이 침입하자 2군 6위로 대표되는 官軍을 동원하여 승리를 거두었다. 먼저 최충현은 전시체제로 돌입하여 거란전에 대응하였다. 상장군 노원순을 중군병마사로, 지어사대사 백수정을 지병마사로 좌간의대부 김은주를 부사로 김취려를 후군병마사로 최정화를 지병마사로 진숙을 부사로 하였다는 것이다. 동원한 군사는 30령, 즉 3만 명이었고 여기에 神騎까지도 배속시켰다.<sup>28)</sup> 이로써 거란과의 전쟁에서 별초군 100명과 신기군 40명은 아미타변에서 승리를 거두었을 뿐만 아니라<sup>29)</sup> 三軍은 連州 東洞에서 적 100여급을 베었다. 또 귀주 直洞村에서 250여 명을 죽이고 3천 여명

從軍者 皆屬部伍 又抄僧爲軍 共數百(『高麗史』 권81, 兵志 1). (고종4)金山王子兵 闖入北鄙 (鄭)叔瞻爲中軍元帥(『高麗史』 권100, 鄭世裕傳 附 叔瞻傳).

25) 『고려사』 권129, 최충현전.

26) 『고려사』 권129, 최충현전.

27) (高宗三年)十一月 宰樞 重房奏 勿論太祖苗裔及文科出身 悉令充軍 從之(『高麗史』 권81, 兵志 1)의 기록도 참조된다. 제주와 중방을 통해 중군하게 한 것은 최충현이었을 것이다.

28) 引兵數萬 渡鴨綠江 攻寧·朔等鎮 掠城外財穀畜產而去 又明日 闖入義·靜·朔·昌·雲·燕等州·宣德·定戎·寧朔諸鎮 (中略) 於是 以上將軍盧元純爲中軍兵馬使 知御史臺事白守貞 知兵馬使 左諫議大夫金蘊珠 爲副使上將軍 吳應夫爲右軍兵馬使 崔宗峻 知兵馬事 侍郎庾世謙 爲副使 就礪 爲後軍兵馬使 崔正華 知兵馬事 陳淑 爲副使 十三領軍及神騎屬焉(『高麗史』 권103, 金就礪傳).

29) 三軍各遣別抄一百·神騎四十人 至阿爾川邊 與賊戰 官軍稍却 神騎郎將丁純祐 突入賊中 斬持纛者 賊奔潰 乘勝斬八十餘級 虜二十餘人 并獲楊水尺一人 得牛馬數百匹 符印器仗甚衆 乃拜純祐爲將軍(『고려사』 권103, 김취려전).

을 포로로 잡았다. 우마 등 노획품 또한 많았다.<sup>30)</sup> 귀주 三岐驛에서는 전투 2일만에 210여급을 베고 39인을 사로잡았다. 또 관군이 朝宗戍에서 싸워 700여 명을 참획하고 馬·驃·牛 및 牌印·兵仗을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얻었다.<sup>31)</sup> 관군이 파리하고 약하여 쓸모가 없었다던 기록과는 분명 대조적이다.

후군병마사 김취려의 활동은 두드러졌다. 거란의 진영을 직공하여 적을 무너뜨리렸다. 또한 추격하다가 거란의 伏兵에게 공격받은 中軍을 후원하여 적을 무너뜨리렸다. 三軍의 방어에도 불구하고 거란군은 최충헌의 鄉里인 牛峯을 寇掠하고 臨江·長湍에 미쳤다. 최충헌 정권은 3군에서 5군체제로 전환하였다.<sup>32)</sup> 5군은 중군·전군·후군·좌군·우군을 말하는 것인데, 각 군에는 특수부대들이 포함되어 조직되어 있다.<sup>33)</sup> 거란의 격퇴에 더욱 박차를 가한 것이다. 5군 체제로 거란을 격퇴하기 시작할 무렵, 거란이 東州(철원)가 함락되자 지휘 책임을 맡아 중군병마사 오웅부를 보직 해임을 시키기도 하였다.<sup>34)</sup> 이렇듯 최충헌의 거란군 격퇴는 매우 적극적이고 구체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30) 三軍又與賊戰于連州東洞 斬百餘級 賊三百餘人 來屯龜州直洞村 軍候員吳應儒 率步卒三千五百人 銜枚擊之 散員 咸洪宰·甄國寶·李稷·校尉任宗庇等 斬二百五十餘級 虜三千餘人 得牛馬戰 具銀牌銅印亦多(『高麗史』 권103, 金就礪傳).

31) 三軍又戰于龜州三岐驛 二日 斬二百一十餘級 虜三十九人(中略) 官軍進次延州 以光裕·延壽·周氏·光世·君梯·趙雄等六將 守獅子岩 永麟·迪夫·文備三 將守楊州 翼日 九將戰于朝宗戍 斬獲七百六十餘人 得馬驃牛及牌印兵仗無算(『高麗史』 권103, 金就礪傳).

32) 就礪拔劍策馬 與將軍奇存靖 直衝賊圍 出入奮擊 賊兵潰 追過開平驛 賊設伏驛北 急擊中軍 就礪回擊之 賊又潰(『高麗史』 권103, 金就礪傳).

33) 5군내 특수부대에 대해서는 이기백, 『高麗史 兵志 譯註(一)』, 고려사연구회, 1969, 12713쪽 참조. 이기백은 5군은 평상시에 편제상으로만 존재하고 거기에 편제된 기간요원들이 배치되어 있다가, 비상시가 되면 元帥·副元帥 및 各軍兵馬使 등의 지휘체계가 이루어지고 아울러 6위의 중앙군과 지방의 주진군 등이 징발 배속되어 출동했던 것으로 생각된다고 하였다.

34) 高麗史 권103, 金就礪傳. 중군병마사에는 전군병마사였던 崔元世를, 전군병마사에는 김취려를 임명하였다.

따라서 “거란의 침입으로 경성이 무방비 상태였다”거나 “관군에서 문객의 차출로 인하여 관군이 파리하고 약하여 쓸모 없었다(官軍 羸弱不可用)”는 기록은 사실과 거리가 멀다고 하겠다. 『高麗史』 찬자가 최충헌을 반역 열전으로 분류하면서 그와 관련된 사실을 비판적인 관점에서 서술한 것으로 여겨진다.

수도 방어의 제일선에 관군의 동원으로만 방어가 용이하지 않다면, 최충헌의 정예화 된 병력이라고 해도 좋은 門客을 중심으로 한 병력의 파견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문제를 최충헌의 입장에서 본다면, 2군 6위의 관군 가운데서 정예화 된 門客의 차출 문제는 병력운용상의 문제일 수도 있다. 門客이나 다음의 G 기록에서 보이는 家兵은 관군에서의 차출이나 募兵을 통해서 충원하였다.

G. 최충헌이 가병을 사열하는데 좌경리에서 우경리까지 대오를 수 겹으로 만들어 2~3리 이어졌으며 창 끝에 은병을 혹은 셋 혹은 넷을 달아매어 국인에게 자랑해 보이며 군사를 모집하였다.<sup>35)</sup>

수 겹의 대오를 이루고 있는 최충헌의 家兵은 거란과 같은 외적의 침략으로 자신의 집권기반은 물론 국가가 위기에 부딪힐 때에는 얼마든지 동원할 수 있는 병력이었다.

개경이 마치 무방비 상태가 되어 버린 원인은 집정자의 국방책에도 불구하고 고려를 침략한 거란의 그것이 워낙 강했기 때문일 것이다. 게다가 楊水尺<sup>36)</sup>들이 거란병에게 항복하고 길을 안내한 것도 사태를 악화시킨 역할

35) 忠獻 闕家兵 自左梗里至右梗里 作隊數重 連亘二三里 槍竿懸銀瓶 或三或四 誇示國人以募兵(『高麗史』 권129, 崔忠獻傳).

36) 이의민집권기에 이의민의 아들인 朔州分道將軍 李至榮이 양수척의 賦役을 자신의 기생인 紫雲仙에게 소속시킨 바 있다. 최충헌이 집권 후 자운선을 첩으로 삼고 人口를 계산하여 공물을 징수하기를 그치지 않아 양수척이 크게 원망하였다. 양수척은 “妓家の 침탈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거란 적에게 항복하여 嚮導가 되었다”고 하였다. 양수척은 태조가 백제를 칠 때에 제어하기 어려웠던 遺種으로 본래 貫籍과 賦役도 없었다. 즐겨 水草를 따라

을 하였다. 그들의 안내로 거란병은 산천의要害와 도로의 원근을 모두 알게 되었다.<sup>37)</sup>

수도를 방어하는 부대들이 배치되어 있을지라도, 양수척들의嚮導로 거란병의 개경에 대한 침략은 대단히 용이했다고 보인다. 양수척의嚮導는 마치 개경이 무방비 상태와 같은 타격을 주었던 것으로 헤아려진다. 최충헌정권은 양계의 방수장군들이 병마관관직을 겸하게 하여 양계 방수직의 중요성을 제도에 반영하였다. 아래의 기록이 이를 말해 준다.

H-1 신종 원년 5월조에, 무신들이 집권하면서부터 양계의 방수장군들로 하여금 병마관관직까지 겸하게 했다(『高麗史節要』 권14).

-2 고종 4년 1월 대장군 오수기로 하여금 보졸 수천 명으로 동계를 방수하게 하였다(『高麗史』 권82, 兵志 2).

최충헌은 특히 변경지역인 양계의 방수장군들이 병마관관직을 겸하게 하여 병력동원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H-1). 거란의 침구에 대비하여 고종 4년에 대장군 오수기로 하여금 보졸 수천 명으로 동계를 방수하게 하였다(H-2). 이렇듯 최충헌정권은 국방과 관련하여 양계의 방수를 강화시켰던 것이다. 최충헌은 양계 방수에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아울러 축성에 대한 문제도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재추들은 최우의 집에서 주, 군의 정용군과 보승군을 징발하여 의주(현, 함남 德源), 화주(현, 함남 永興), 철관(현, 함남 德源) 등 군사적 요충지의 축성공사에 투입할 것을 결정하였던 것이다.<sup>38)</sup> 이러한 재추의 결정은

옮겨 사는 것이 無常하여 오직 사냥을 일삼고 柳器를 엮어 파는 것을 업으로 삼았다. 이에 대해서는 『高麗史』 권129, 崔忠獻傳 참조.

37) 契丹兵至 迎降嚮導 故悉知山川 要害道路遠近(『高麗史』 권129, 崔忠獻傳).

38) 宰樞 會崔瑀第 議發南方州郡 精勇·保勝軍 城宜州·和州·鐵關等要害之地 以備蒙古(『高麗史節要』 권15, 高宗8년 閏12월조).

몽고의 침략에 대비하려는 것이었다. 회의를 주재한 것은 최우였으나, 아직은 최충헌 집권 아래에 있었다. 최충헌 정권은 국방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sup>39)</sup> 거란의 침략으로 인한 州郡 백성의 유망에도 불구하고 축성 결정을 한 것은 몽고의 흥기와 군사동향을 파악한 데서 비롯된 것 같다. 최충헌의 경군 운용과 국방의 문제는 그의 정권의 안정과도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 3. 都房과 警護의 強化

최충헌은 국방을 담당하는 경군을 장악하는 일 이외에도 도방으로 대표되는 사병세력을 키우는 데에도 적지 않은 관심을 쏟았다. 그는 왜 정규병력인 경군의 장악에 만족하지 않고 사병세력을 키웠을까. 사병세력의 양성은 자신의 신변을 보장을 위한 것이었다. 이 말은 최충헌이 기존의 중앙군인 京軍만으로는 신변보장이 어려웠다는 이야기다. 왜 그는 경군으로 신변보장이 어려웠으며, 그 안전장치로서 제도권 밖으로 눈을 돌릴게 되었을까. 그는 도방을 설치하여 자신의 신변보호는 물론 그의 정권기반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도방의 설치에 그가 명종26년(1196) 이의민을 죽이고 정권을 잡은지 4년 만인 신종 3년(1200)에 하였다. 신종 3년까지의 최충헌의 사정이 도방을 조직하지 않고서는 신변의 위협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된다. 최충헌은 앞 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의민과 그 추종세력들을 제거하면서 자신에게 위협이 될만한 무신들을 제거하였다.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신종 원년 1월 山川裨補都監을 설치한 바 있었다. 그러니까 도방을 설치하기 이미 2년

39) 회의에서 축성에 대한 知奏事 金仲龜의 반대 의견도 있었다. 거란의 침략으로 주, 군의 백성이 유망한 형국에 도 군병을 징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高麗史節要』 권 15, 高宗8年 閏12월조.

전에 산천비보도감을 설치하였던 것이다. 산천비보도감은 왜 설치하였을까 하는 점을 먼저 생각해 보는 것이 그가 도방을 설치하게 된 배경을 이해하는 한 실마리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산천비보도감은 재추와 중방, 그리고 최충헌이 술사를 모아서 하였다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산천비보도감 설치의 발의자는 재추와 중방, 그리고 최충헌이 공동으로 하였고, 여기에 術士가 참여한 형식으로 되었다. 이들을 모이게 한 장본인은 최충헌이었다.<sup>40)</sup> 이것은 산천비보도감의 설치가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다름 아닌 최충헌 자신이었다고 생각된다.

산천비보도감은 국내의 산천을 비보해서 國基를 延長하기 위해 설치한 것이었다. 國內 山川의 裨補를 위한 主務者는 위 사료로 보아 術士임에 틀림없다. 그러면 이들이 논의했다는 ‘基’란 무엇이였을까. 이와 관련하여 최충헌이 올린 봉사 10조 가운데 9조가 눈에 들어온다.<sup>41)</sup>

I. 태조의 시대에는 반드시 산천의 순역으로써 사찰을 세워 지리에 따라 편안케 하였는데 후대에는 장상 군신과 무뢰한 승려 등이 산천의 길흉을 불문하고 불우를 세워 원당이라 이름하여 지영을 손상시켜 재변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오직 폐하께서는 음양관으로 하여금 검토케 하여 무릇 비보사지 이외에는 곧 제거하여 남겨두지 말게 하소서<sup>42)</sup>

40) 山川裨補都監 神宗元年 宰樞及重房崔忠獻等 集術士 議國內山川裨補延基事 遂置都監(『高麗史』百官志 諸司都監各色條). 神宗元年正月 置山川裨補都監 崔忠獻會宰樞重房術士 議國內山川裨補延基事 遂置都監(『高麗史節要』권14).

41) 산천비보도감에 등장하는 術士를 최충헌이 올린 봉사 10조 가운데 9조와 관련시킨 연구는 李丙燾의 견해가 참조된다. 이병도는 최충헌의 이러한 조치는 단순히 역불을 위한 조치만이 아니라 최충헌 자신이 당시 고려사회에 팽배해 있던 재래의 지리도참사상과 술가의 이론에 사로잡혀서 국내산천의 비보압승에 의하여 국가의 태평을 도모하고 자기의 안전을 꾀하려는 데 더 큰 의의가 있다고 하였다(李丙燾, 『高麗時代의 研究』, 亞細亞文化社, 1980, 275~278쪽 참조). 李在範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산천비보도감의 의의에 대해서 주목하였다. 그는 최충헌이 당시의 정국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고 가기 위하여 풍수지리사상을 이용하고 있다고 하였다(이제범, 앞의 논문 17~18쪽 참조).

42) 在祖聖代 必以山川順逆 創浮圖祠 隨地以安 後代將相群臣 無賴僧尼等 無問山川吉凶 營立

K C I

---

佛宇 名爲願堂 損傷地脈 災變屢作 惟陛下陰陽官檢討 凡裨補外 輒削去無爲後人觀望(『高麗史』 권129, 崔忠獻傳).



태조의 시대에는 반드시 산천의 順逆으로써 사찰을 세워 지리에 따라 편안케 하였는데 후대에는 ‘將相’ ‘群臣’과 ‘僧尼’ 등이 산천의 길흉을 불문하고 불우를 세워 願堂이라 이름하여 지맥을 손상시켜 재변이 자주 일어났다는 것이다. 따라서 음양관에게 검토하여 비보사찰 이외에는 제거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최충헌이 國內 山川을 裨補하기 위하여 산천비보도감을 설치한 것은 封事와 관련해서 ‘將相’ ‘群臣’과 ‘僧尼’들이 불우를 세워 원당을 지은 행위에 있다고 했다. 이것은 ‘將相’ ‘群臣’과 ‘僧尼’ 등의 존재가 그의 집권 기반을 다지는데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將相’ ‘群臣’과 ‘僧尼’란 적어도 최충헌 정권의 이해관계와는 거리가 먼 존재들이었다고 해야려진다. 따라서 최충헌은 재추와 중방의 논의 형식을 거쳐 산천비보도감을 설치하였던 것이다.

최충헌은 풍수지리사상을 근거로 한 산천비보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어떠한 조치를 취했을까. 단적이지만 아래의 사료에서 엿볼 수 있다.

J. 이의민의 沙堤를 무너뜨렸다. 처음에 의민이 낙타교에서 저교까지 제방을 쌓고 제방 가에 버드나무를 심으니, 사람들이 감히 비방하지 못하고 새로운 도의 재상이라고 일컬었다. 후에 동남방에 도적이 크게 일어나고, 또 노예들이 반역을 꾀하니, 술가가 이를 지적하여 말하므로 이 제방을 무너뜨렸다.<sup>43)</sup>

사료 J는 최충헌이 이의민의 私堤를 무너뜨린 사실과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다. 처음에 이의민이 駱駝橋에서 猪橋까지 제방을 쌓았는데 사람들이 감히 비방하지 못했는데, 후에 동남방에 도적이 크게 일어나고 또 노예들이 반역을 도모하자 術家가 이를 지적하여 말함으로써 이 제방을 무너뜨렸다는 것이다. 최충헌이 술가를 통하여 이의민의 제방을 무너뜨린 것은

43) 壞李義旼私堤 初 義旼 自駱駝橋 至猪橋築堤 夾堤種柳 人不敢斥言 稱爲新道宰相 後東南賊大起 又奴隸謀逆 術家 指以爲說 故 壞之(『高麗史節要』神宗 元年 5月條).

산천도감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최충헌은 산천도감을 통하여 경주의 도처에 造山과 築墩을 한 바 있다.<sup>44)</sup> 그는 築墩, 즉 돈대를 축조하였다. 돈대란 적에게 방어하는 군사를 엄폐시키면서 적을 바라보면서 공격할 수 있는 시설물이다.<sup>45)</sup> 최충헌은 돈대를 지어 국방시설을 갖추면서 동시에 이의민과 관련한 옛 신라지역의 부흥운동<sup>46)</sup>과 같은 일어날지도 모르는 반란을 진압하려 하였다.

최충헌은 신종 3년에 都房을 설치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의 사료에 주목하여 보자.

K. 최충헌이 스스로 방자한 것을 알고서 변고가 뜻밖에 일어날까 두려워 하여, 모든 문무 관리 한량으로부터 군졸에 이르기까지 역세고 완력있는 자를 모두 모아 불러 와서, 6번으로 나누어 날마다 번갈아 그 집에 숙직시키고, 도방이라 이름하였다. 그가 드나들면 번을 합쳐 옹위하니, 전투에 나가는 것과 같았다.<sup>47)</sup>

44) 鳳凰臺近處造山 殆三十餘 不知其何時所作也 高麗崔忠獻用術人言 以國內山川移背走 設裨補都監十二年 處處在在 皆造山築墩 以壓勝之 以東都舊國數叛 尤致意焉 疑卽此時所造也 或羅時所作 以裨補地理 不可知也(『東京雜記』). (『東京雜記』에 대해서는 權以鎮, 『東京雜記刊誤』(光文會本) 閔周冕, 『東京雜記』所收, 東文選, 1991, 564~565쪽 참조.

45) 시대는 한참 이후의 것이기는 하지만, 19세기 말에 축성된 수원 華城의 西北空深墩은 돈대의 일반적인 형태와 구조를 쉽게 확인시켜 준다.

46) 慶州를 중심으로 한 新羅 復興運動은 산천비보도감이 설치되고 2년 후인 神宗 5년(1202)에 일어났다. 이에 대해서는 朴莒熙, 「李奎報의 ‘東明王篇’ 詩」, 『歷史教育』 11·12合集, 1969. 旗田隼, 「高麗의 武人と地方勢力-李義叟と慶州」, 『朝鮮歷史論集』 上, 1979. 金皓東, 「高麗 武臣執權下에서의 慶州民의 動態와 新羅復興運動」, 『民族文化論叢』 2·3, 嶺南大, 1982. 金塘澤, 「崔氏政權과 國王」, 『高麗武人政權研究』, 1987, 새문사. 朴敬子, 「武臣政權期の 慶州民의 動向」, 『李基白先生古稀紀念 韓國史學論叢』 上, 一潮閣, 1994. 李貞信, 「12·13세기의 삼국부흥운동」, 『한국사에서의 분열과 통일』, 한신인문학연구소, 2000, 11.

47) 忠獻自知綜恣 恐其變生不測 大小文武官吏·閑良之士 至於軍卒強有力者 皆皆招治 分爲六番 更日直宿其家 號都房 及其出入 合番擁衛 如赴戰鬪焉(『高麗史節要』 권14, 神宗3년 12월).

최충현이 도방을 설치했던 것은 불의의 변고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다. 도방원은 文武官吏와 閑良에서부터 軍卒에 이르기까지 힘센 자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도방원들이 맡은 일은 최충현의 신변 보호와 崔忠獻家를 宿衛하는 것이었다. 도방원의 근무 방식은 도방원을 6番으로 나누어 날마다 숙위하게 하였다.<sup>48)</sup> 최충현에 대한 도방원의 경호<sup>49)</sup>는 흡사 전투에 나가는 군인들 같았다고 한다.

이렇게 해서 조직된 최충현의 사병조직은 그의 권력이 공고해짐에 따라 아들 최우 때까지는 점점 증강되었을 것이다.<sup>50)</sup> 그 정확한 병력규모는 알

48) 柳昌圭, 『崔氏武人政權下の 都房의 설치와 그 向方』, 『東亞研究』 6, 1985; 『高麗武人政權研究』, 서강대학교 출판부, 1995, 118~123쪽 참조). 柳昌圭는 문객 가운데 관군으로 종군하기를 희망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먼 섬으로 유배하였다는 『高麗史』 권129, 崔忠獻傳의 기록도 도방의 결속력이 깨질 것을 우려한 조치였다고 하였다. 門客들이 최충현과 사적으로 결합되어 있었지만, 중앙의 임무를 동시에 맡고 있었다는 점이 구조적인 취약점으로 이해하였다. 그런 문객들을 통하여 도방을 조직화하고, 지휘하여 나갈으로써 중앙 정계에 강력한 힘을 행사하였다고 하였다. 그러나 문객들이 公·私 양쪽에 걸쳐 있었다는 사실은 취약점보다는 장점으로 작용할 소지가 많았다고 보인다. 그들이 중앙에 속해 있으면서 최충현에게 충성을 받치는 존재들이라는 점에서 그렇다. 최충현이 중앙의 흐름을 도방의 문객을 통해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최충현이 국방에 대한 태도를 결정짓는 일과 무관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그가 관군 가운데 힘있는 자들을 문객으로 차출하거나 거란이 침입하였는데도 문객 가운데 관군으로 종군하기를 청하는 자들을 강력히 막았던 것도 국방 문제와 자신의 신변보호 양자가 모두 중요한 현실을 그들의 動態를 통해서도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은 아닐까 한다.

또 도방을 최충현이 조직적인 군사조직의 필요성에서 조직하였다고 하는 연구는 李京惠, 『高麗 崔氏武人政權의 都房-崔氏·都房·家兵의 상호관계를 중심으로-』, 서강대학교원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01.

49) 이에 대한 도방원의 역할에 대해서는 柳昌圭, 앞의 논문, 특히 118~123 '都房의 構造'를 참조.

50) 崔沆이 죽은 후 그의 유언에 따라 아들 崔嬪가 정권을 계승하였다. 최의의 擁衛를 도운 것은 夜別抄·神義軍·書房·都房이었다. 이때 도방은 36番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柳昌圭는 이에 대해 도방이 종래의 해석대로 36번의 수가 늘었기 때문에 그만큼 도방의 구성원도 증가한 것이었으며, 그 세력 역시 강화되었다고 보지 않았다. 도방의 인원 수는 증가하지 않은 채 번의 횟수만 늘린 것으로 도방의 구성원이 최씨가에 번을 드는 횟수는 상대적으로 줄어들었으며 그 만큼 최씨가와 소원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해석하였다(柳昌圭, 앞의 논문, 128쪽 참조). 필자도 씨의 해석에 따른다. 최항대에는 최우 때

수 없으나, 최충헌이 별장을 나설 때 “시종한 문객이 거의 3천여 명이였다”<sup>51)</sup>거나 최충헌의 아들 최우를 경호한 사병의 대열이 “數리에 뻗었다”<sup>52)</sup>는 사실은 적어도 3천명은 넘었음을 알 수 있다.<sup>53)</sup>

이러한 대규모의 사병집단의 인적자원은 어디에서 확보되었을까? 그것은 앞서 언급하였지만, 주요한 보충원은 일반군졸들이었고 그 군졸들이란 다름 아닌 경군에 속해 있던 군졸들이었다.<sup>54)</sup> 그리고 병력의 확보는 무차별적 징집이 아니라 힘세고 용감한 군사들만 선별하여 차출하는 가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뿐만 아니라 募兵의 형식도 취해졌다. 다음의 사료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

L. 최충헌이 가병을 사열하는데 좌경리에서 우경리까지 대오를 수 겹으로 만들어 2~3리 이어졌으며 창 끝에 은병을 혹은 셋 혹은 넷을 달아매어 국인에게 자랑해 보이며 군사를 모집하였다.<sup>55)</sup>

최충헌은 병력의 대열이 몇 겹으로 마을을 에워쌀 정도의 家兵을 사열하면서, 가병들의 창끝을 銀瓶으로 장식하여 國人에게 과시하게 함으로써 병력을 모집하였다고 한다. 대규모의 가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募兵을 하였다는 사실이 주목된다. 최충헌은 모병을 하는 과정에서 銀瓶이라는 ‘실제적인 매체’<sup>56)</sup>를 통해 의장행위를 화려하게 하였다. 가병의 의장행위를 창

까지 누리던 정권의 기반이 약해져 갔다고 보인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정권의 수명도 최우가 36년간이었음에 반해 최항은 8년에 지나지 않았다.

51) 『高麗史節要』 권14, 熙宗 2년 3월조.

52) 『高麗史節要』 권15, 高宗 5년 3월조.

53) 고종 20년 12월 西京에서 흥복원 등이 반란을 일으키자 최우가 家兵 3천명을 보냈다(『高麗史節要』 권16)는 사실도 최씨의 문객의 규모를 엿볼 수 있게 한다.

54) 柳昌圭, 앞의 논문 참조.

55) 忠獻 闕家兵 自左梗里至右梗里 作隊數重 連亘二三里 槍竿懸銀瓶 或三或四 誇示國人以募兵(『高麗史』 권129, 崔忠獻傳).

56) 실질적인 매체, Actual Form에는 장수의 윙통성, 응번, 루머, 집회, 데모, 행진, 유니폼, 종교, 양식, 게시판, 포스터, 배이라 등이 있다. 宣傳技法에 대한 자세한 언급은

끝에 은병 서너개 씩을 달아 화려하게 함으로써 많은 國人들의 지원을 유도하였던 것이다. 이렇듯 최충헌은 군사적 경험이 있는 경군에서 뿐만 아니라 모병을 통해서도 사적 군사력을 확보해 나갔다. 모병을 통해 충당된 가병은 중앙에 메여있지 않고 오로지 최충헌에게만 충성을 다한다는 점에서 경군에 소속되었던 문객들과는 다르다고 하겠다.

이들은 최씨집정부의 직속 사병군단이었던 만큼, 비록 제도적인 급료제 도하에서 운영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병들의 생계보장은 물론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관직에 나아갈 수 있는 특혜까지 주어지고 있다.<sup>57)</sup> 도방원의 경우도 신분보장과 승진은 경군에 소속된 자들보다는 나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도방의 운영 비용은 어떻게 충당되었을까. 그것은 최충헌의 私財에서 나왔을 것으로 여겨진다. 또 도방의 군인들이 본래 관군에 적을 두고 있는 군사들이었기 때문에 그의 사병집단은 公私半半의 재정으로 유지되었다고 하겠다. 일례로 고종 4년 1월에 정부비축 양곡을 풀어서 서울에 있는 五領軍과 최충헌의 家兵들에게 5일분 씩 지급한 사실은<sup>58)</sup> 그의 가병들이 현실적으로는 정부군과 동일한 지위에 있었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최충헌의 사병집단이 이런 방식으로 확보·운영되었기 때문에 2군 6위의 공식적 관군 조직은 병력면에서나 전투력 면에서나 자연히 허약해질 수밖에

Terence H. Qualter, *The Techniques of Propaganda*, Allan Walls(ed. Mass Media and Society, California, National Press Book, 1972, 276~277쪽. Lee. A. M. and Lee E. B.(eds.), *The Fine Art of Propaganda; A study of Father Coughlin's Spechs*, New York. Brace & Company, 1939, 26~105쪽 참조.

57) 柳昌圭, 앞의 논문, 119쪽 참조. 유창규는 崔忠獻會賓客 設重陽宴 使都房有力者手搏 勝者即授校尉·隊正 以賞之(『高麗史節要』 권14, 熙宗5년 9월)에서 도방의 구성원에게 교위나 대정을 상으로 준 경우는 일반적으로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그러나 최충헌은 누구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도방의 구성원에게 하위 장교직을 주었다고 보았다. 최충헌은 도방의 구성원들에게 보상을 하여줌으로써, 도방의 구성원들은 더욱 충성을 하였다라는 것이다.

58) 『高麗史節要』 권15, 高宗4년 1월조.

에 없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다. 최충헌의 도방 운용으로 국방의 주력군인 경군이 약화를 초래한 것으로 『高麗史』 撰者들은 인식하였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최고의 권한을 갖고 있으면서, 도방과 같은 신변보호는 물론 전투에도 동원될 수 있었던 정예화 된 사병집단을 부릴 수 있었던 최충헌으로선 국방에 크게 문제가 될 일은 아니었던 것이다. 그는 『고려사』 찬자의 우려를 대신할 제도적 장치로서 別抄軍을 운용하였던 것이다.

#### 4. 別抄軍과 地域 防禦

別抄軍이란, 그 명칭이 말해주듯이 특별히 뽑은 군사들로 구성된 병력을 뜻한다.<sup>59)</sup> 『高麗史』나 『高麗史節要』를 보면 별초군에 관한 기록이 무인정권기에 처음, 그리고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동안의 별초군에 대한 연구는 주로 三別抄의 대몽항전과 관련하여 이루어졌다고 파악된다.<sup>60)</sup> 그

59) 별초군을 명칭의 말뜻대로 일반명사로 이해하여 그 용례를 찾는다면 ‘별동대’라든가 ‘특공대’, 또는 ‘신봉대’라는 용어와도 통한다고 하겠다. 이러한 부류의 부대는 모두 가려 뽑아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렇게 보면 국가가 존재하여 兵制가 시행된 경우에 별초군이 존재하였을 것임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용례의 적용으로는 최충헌 정권의 별초군제 시행과 관련하여 역사적 성격을 가능하는데 도움이 되질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別抄란 이름으로 불리워진 경우만 검토하는 것이 문제에 접근하는데 용이하다고 생각한다.

60) 그 대표적인 연구는 池內宏, 「高麗 三別抄」, 『史學雜誌』 37-9, 1926; 『滿鮮史研究』 中世編 3, 1963. 金庠基, 「三別抄와 그의 亂에 就하여」(一·二·三), 『震檀學報』 9, 10, 11, 1939-1940. 특히 김상기의 연구는 삼별초의 대몽항전이 지니는 의의에 대해 우리의 관심을 끌었다는 점에서 역작이라고 할 수 있다. 실증사학의 방법론에 입각하여 연구를 진행한 김상기의 연구 이후 발표된 논문은 다음과 같다. 尹龍燾, 「崔氏武人政權과의 對蒙抗戰姿勢」, 『史叢』 21·22합집, 1977. 金潤坤, 「三別抄의 對蒙抗戰과 地方 郡縣民」, 『東洋文化』 20·21합집, 1981. 金塘澤, 「武臣政權時代의 軍制」, 『高麗軍制史』, 육군본부, 1983. 「崔氏政權과 그 軍事의 基盤」, 『高麗武人政權研究』, 새문사, 1987. 申安湜, 「高麗 中期의 別抄軍」, 『建大史學』 7, 1989.

러나 별초군제의 체계적 이해를 통해 그 운용의 實相을 살펴보려는 노력이 다소 소홀하였다고 생각된다.

필자는 최씨정권과 관련하여 별초군제를 통해 최충헌 정권의 성격을 이해하는데 세가지 점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첫째는 별초군제가 언제 어떻게 시행되었는가 하는 점이다. 둘째는 별초군제의 운용의 실상에 대해서 파악해 보려고 한다. 셋째는 이상의 이해를 바탕으로 별초군의 성격을 생각해 보려 한다.

별초군 하면 최우대에 설치한 삼별초가 먼저 떠오른다. 그것은 제도적으로 설치되었다는 명확한 기록이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M. 처음에 최우가 나라안에 도적이 많아지자 힘센 무사를 모아 매일 밤 순찰하여 폭력을 막고자 하여 야별초라고 하였다. 도적이 여러 도에서 일어나자 야별초를 여러 도에 나누어 파견하여 잡으려 하였는데, 그 군사가 점차 많아지자 좌별초와 우별초로 나누었다. 또 고려인으로서 몽고에서 포로로 돌아온 자의 일부를 신의군으로 삼았다. 이로써 삼별초가 되었다. 권신이 권력을 잡아 삼별초를 瓜牙로 삼아 그 봉록을 후하게 하고 사사로이 혜택을 베풀었다. 또 죄인의 재산을 몰수하여 나누어 주기도 하였다.<sup>61)</sup>

야별초가 공식적으로 처음 설치된 것은 최우대였다는 기록이다. 폭력을 막기 위해 밤에 순찰을 주로 하던 임무가 늘어나 좌, 우별초로 나누었다.<sup>62)</sup> 이후에 몽고에서 탈출한 자들 가운데 일부를 뽑아서 신의군으로 하여 삼별초가 되었다고 전하고 있다. 삼별초는 녹봉을 후하게 받았으며 집

61) 初崔瑀稱國中多盜 聚勇士 每夜巡行禁暴 因名夜別抄 及盜起諸道 分遣別抄以捕之 其軍甚衆 遂分爲左右 又以國人自蒙古逃還者 爲一部 號神義 是爲三別抄 權臣執柄 以爲瓜牙 厚其俸祿 惑施私惠 又籍罪人之財而給之(『高麗史』 권81, 兵志1).

62) 야별초에 대해서는 김당택, 「최씨정권과 그 군사적 기반」, 金秀美, 『高麗武人政權期の 夜別抄』, 『高麗武人政權研究』, 서강대출판부, 1995 참조.

권무인의 사사로운 은혜를 받기도 하였다. 이들에게는 때로는 죄인들에게 몰수한 재물이 분급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조건에서의 삼별초는 기존의 경군과는 임무<sup>63)</sup>도 달랐지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들을 가려서 뽑은 자로 조직되었던 것이다. 그들에게 주어지는 대우 또한 각별한 것이었다. 고종 6년(1219)에 집권한 최우가 개경의 치안유지를 위하여 조직한 야별초가 별초군의 효시로서 처음에는 개경에만 설치 운용되다가 전국적으로 확장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사실은 최우가 야별초군을 설치하기 이전부터 별초군은 존재하고 있었다. 현존 史書에 처음으로 별초군이 등장하는 시기는 명종 4년(1174) 조위총의 반란이 일어났을 때였다. 제2장에서 언급되었던 것처럼, 다른 아닌 崔忠獻이 別抄 都令으로 선발·임명되었던 시기였음을 아래의 기록에서 알 수 있다.

N. 명종4년 원수 기탁성이 조위총을 칠 때에 최충헌의 용감함을 듣고 별초도령으로 뽑았는데, 전공을 쌓아 섭장군으로 승진하였다.<sup>64)</sup>

위 기록은 조위총 토벌군의 사령관인 기탁성이 최충헌을 별초군의 도령으로 삼았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 그가 별초군에 뽑힐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의 용맹성에 있었다. 별초군에서의 전공으로 최충헌은 섭장군으로 승진할 수 있었다. 이후 별초군이 운용된 용례는 신종5년(1202) 10월에 경주별초군이 평소 永州지역 사람들과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이 달에 운문의 賊徒들과 부인사, 동화사 두 절의 승려들을 이끌고 영주를 공격하였다는

63) 야별초가 도적을 잡는 임무가 주된 것이었다. 이 임무는 경군 가운데 金吾衛에게 주어진 임무였다. 이것은 금오위만으로는 이제 횡행한 도적을 잡는 일이 버거워졌다는 점을 미루어 알 수 있다. 최우는 기존의 금오위를 능가하는 조직을 만들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것으로 이해된다.

64) 明宗四年 元帥奇卓誠 擊趙位寵聞忠獻勇敢 選補別抄都令 以勞累遷攝將軍(『高麗史』 권129, 崔忠獻傳).



기록이 있다.<sup>65)</sup> 또한 고종 3년 8월에 거란군이 침입해 왔을 때에는 3군이 각기 별초군 100명과 신기군 40명이 朝陽에서 적군과 전투를 벌였다고 한다.<sup>66)</sup>

종합적으로 이야기하면, 別動隊로서의 별초군은 최우가 집권하기 40여 년 전에, 다시 말해 무신란 직후부터 이미 경군의 조직 안에 운용되고 있었고 또 최우가 개경에 야별초를 설치하기 전에 이미 지방에 따라서 별초군이 편성되어 있었음이 확실하다.<sup>67)</sup>

무신란 직후부터 편성되고 있었던 이 별초군이 어떤 과정을 거쳐 개경의 경군 안에 뿐 아니라 경주와 같은 지역사회에까지 확대 편성되었을까. 그것은 거란의 침구에 따라 전장에서 임시적으로 경군 안에서 별초군의 편성이 이루어졌던 것은 아닐까 한다. 별초군의 편성은 선봉대와 같은 역할을 하여 적을 일시에 타격을 가하여 전열을 무너뜨리는 데에 있었다. 또 전쟁 발생 시에 5군이나 3군 편제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별초군도 각 군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보여지기 때문이다. 경주에서의 별초군의 편성은 아마도 李義旼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의민은 경주 출신으로 그 곳에 지역기반을 두고 있었던 인물이다. 그는 慶大升이 국왕을 시해한 이의민을 응징할 것<sup>68)</sup>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병을 칭하고 고향인 경주로 피신해 있었다.<sup>69)</sup> 그가 개경으로 다시 올라온 것은 그를 버르던 경대승이 죽고 난 이후의 일이었다. 경주에 피신해 있던 시절, 이의민은 경주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강력한 부대를 두어야 할 필요성을 느꼈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최충헌의 집권이 이루어진 이후

65) 『고려사절요』 권14, 神宗2년 10월.

66) 『고려사절요』 권14, 高宗3년 8월.

67) 최충헌이 임명되었던 별초군은 상설조직이었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토벌군 자체가 임시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토벌과 동시에 뽑혔던 별초군은 다른 부대로 배속되었다고 본다.

68) 弑君者尚在 焉用賀爲(『高麗史』 권98, 慶大升傳).

69) 懼不自安 稱疾歸其鄉(『高麗史』 권128, 李義旼傳).

에 경주별초군이 등장하는 것도 경주지역에서 일어난 신라 부흥운동과 무관하지 않다고 여겨진다.

최충현은 일찍이 별초군의 도령으로 선발되었던 인물이다. 별초군 운용의 효과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인물이 바로 최충현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가 거란군의 침입 때에 별초군을 조직하였던 것도 그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이렇게 볼 때 최우의 야별초는 고려 별초군제의 기원으로서가 아니라 기왕의 별초군 가운데에 그 규모와 기능 그리고 전투력 면에서 가장 강력한 별초군 조직의 등장이라는 의미로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별초군은 명칭에서 나타나듯이 획일적 징집에 의해 이루어지는 보통병력이 아니라 선발 모집에 의해 확보되는 특수병력이었다. 그리고 선발 기준은 물론 전투원으로서의 용맹성에 있었다. 명종 4년에 최충현이 별초군의 도령으로 뽑히게 된 것은 그의 용맹성 때문이었다. 사료 M에서 보이듯이, 삼별초의 하나인 神義軍이 몽고로부터 탈출한 군인 가운데 일부를 뽑아 편성한 것도 그들의 용맹성에 있었다.

최충현정권에서 출발한 별초군제는 이후 어떻게 확대되어 갔을까. 첫째는 최충현이 선발되었던 별초군 같이 머리 명칭이 없는 별초군이 있다. 이것은 기동타격대의 의미를 가진 별초로 이해된다. 앞에서 지적된 최충현이 거란 침입시 3군에서 편성한 별초군이라든가 고종 43년 4월 서북면병마사가 몽고군을 치기 위해 보낸 별초군<sup>70)</sup> 등이 그것이다. 이 별초군은 임시로 편성되었다가 임무 완수 후에 본래의 소속 부대로 돌아가는 형식으로 운용되었다고 이해된다.

둘째는 지역 명칭이 붙어있는 별초군이 있다. 예컨대 앞서 언급된 慶州別抄軍 밖에도 都護別抄軍, 涇州別抄軍, 諸城別抄軍, 大府島別抄軍 등이 그러하다.<sup>71)</sup> 경주별초군을 제외하고는 몽고의 침입과 관련하여 조직된 별초군이다. 셋째는 馬別抄란 명칭도 보인다. 고종 16년 겨울 10월에 최우가

70) 『高麗史節要』 권17, 고종 43년 4월.

71) 『高麗史節要』 권16, 고종 18년 9월, 권17, 고종 43년 4월 참조.

그 집에서 宰樞들과 연회를 갖고 구정에서 都房, 馬別抄가 격구를 하고 弄槍騎射하는 것을 관람하였다고 한 기록이 그것이다.<sup>72)</sup>

그런가 하면 신분 명칭이 붙는 별초군도 있었다. 즉 고종19년 1월 충주 부사 우종주는 문서를 처리할 때마다 관관 유홍익과 틈이 있다가 몽고군이 다다른다는 소문을 듣고 성을 지킬 것을 의논하는데 의견이 달랐다. 우종주는 兩班別抄를 거느리고 유홍익은 奴軍雜類別抄를 거느리고 시기하다가 몽고군이 들이닥치자 우종주, 유홍익, 양반 등은 모두 성을 버리고 달아났고 오직 노군잡류가 힘을 모아 적을 격퇴했다는 것이다.<sup>73)</sup> 이들 신분 명칭이 붙은 별초군도 지역방위와 관련이 있었음은 믿어 의심치 않다.

이와 같이 사서에 나타나고 있는 무인집정기의 별초군은 다양하다. 그 조직체계가 어떠한지 선뜻 그리기 어렵다. 다만 최우가 설치했다는 야별초가 주축이 되어서 이루어진 삼별초는 경군과는 별도로 편성된 조직이었다. 별초군을 만드는 기준도 상황에 따라서 일정치 않았다. 최씨집정부 직속의 야별초, 마별초 등은 상비적이고 제도화된 일종의 기동경찰대였지만, 몽고 침략 때에 충주에서 양반별초와 노군잡류별초는 급작스러운 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응급 편성한 신분별 부대였던 것이다. 그리고 최충헌이 거란의 침입 때 3군에서 내보낸 별초군도 상비적으로 설치된 부대였다기 보다는 本隊의 작전을 돕기 위하여 임시적으로 편성운용한 별동대였다고 이해된다. 그러나 상비적인 별초군이 중앙에만 편성되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예컨대 경주별초, 제성별초, 대부도별초 등은 상당히 상비적 성격을 지니는 부대였던 것 같다. 그러니까 별초군은 크게 중앙의 상비적 제도로서의 별초군, 비상시에 임시응급적으로 편성운용된 별초군, 그리고 準常備의 별초군으로 구분되어 있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별초군의 선발을 위한 일정한 제도적 장치가 있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별초군이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역할, 지역, 상황에 따른

72) 『高麗史節要』 권16.

73) 『高麗史節要』 권16.

편의성에 입각하여 편성 운용되는 부대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京外의 여러 상비적 내지 준상비적 별초군들은 상비적인 관군의 역할을 수행하는 부대들이었으므로 경외의 각급 관리들에 의해 선발되고 운용되었을 것임은 쉽게 짐작된다. 이 점은 무인집권기의 별초군이 有給의 선발된 직업군인들로서 관리되고 있었다는 사실에 의해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삼별초군도 보수를 받고 專業的으로 복무하는 군인들이었음은 사료M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한 점에서는 外方에 편성되어 있던 별초군도 마찬가지로 아니었나 싶다. 별초군은 상비적, 제도적 성격을 띠는 한에 있어서는 지방의 별초군이라 하더라도 어떤 반대급부가 없이는 유지될 수가 없는 병력이었기 때문이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크게 주목되는 사료는 원종 14년 10월의 다음의 기록이다.

O. (왕이) 명하기를, 지난번에 탐라를 토벌할 적에 경외별초로 도망간 자들이 많아 징계가 불가피했기 때문에 그들의 田丁을 환수했었다. 그러나 근래에 좋지 못한 자연의 조짐들이 자꾸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朕이) 德을 닦아 재변을 없애고자 하니 환수했던 전정을 모두 돌려주라고 하였다(『高麗史』 권19, 元宗 14년 10월).

여기서 말하는 탐라토벌은 제주도로 들어간 삼별초에 대한 토벌을 말하는 것으로, 그 때에 경외별초 병력이 출동되었던 모양이다. 그리고 경외별초라고 하는 것은 京別抄와 外方別抄를 합칭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이들 경별초와 외방별초군에게는 田丁이 지급되었던 것이다.

최씨집정시대에 중앙과 외방의 각지에 설치되어 있었던 별초군은 有給選拔軍이었음이 확실하다. 그리고 그들의 정치적 성격까지를 아울러 말한다면 半私半公의 有給選拔軍이었다고 할 것이다. 군사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한다면 별초군은 攻擊的인 別動隊였다. 별초군이 주로 공격적인 성격의 부대였을 것임은 그 병력이 용맹한 자들로만 구성되었다는 사실에서 이미 짐작할 수 있었다. 그런 의미에서 야별초와 같은 별초군은 일종의 기동타격대였던

것이다. 별초군의 공격적 별동대로서의 모습은 몽고와의 항전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이와 관련한 몇 가지 기사를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 P-1 최우 도방의 都督 李裕貞이 적을 치겠다고 자청하므로 군사 160명을 주어 보냈다(『고려사절요』 권16, 고종 22년 8월).
- 2 아별초가 지평현 사람들과 함께 밤에 몽고군사를 습격하여 죽이고 포로한 것이 매우 많았고, 말과 노새를 빼앗아 받쳤다(『고려사절요』 권 16, 고종 22년 10월).
- 3 가을 7월에 몽고군이 价州에 이르렀는데 京別抄 校尉인 회경과 개주의 중랑장 명준 등이 복병으로 협격하여 살상이 자못 많았고 鞍馬 弓矢 의복 등의 물건을 많이 노획하였다(『고려사절요』 권16, 고종 23년 6월).
- 4 몽고 군사의 척후병 300여 명이 전주성 남쪽 반석역에 이르자, 別抄指 諭 李柱가 거의 쳐죽이고 말 20필을 노획하였다(『고려사절요』 권17, 고종40년 8월).
- 5 서북면 병마사가 별초 300여 명을 보내어 몽고병 1천을 의주에서 공격 하였다. 大府都 別抄가 밤에 仁州 지정 소래산 밑에 나와 몽고병 100 여명을 격퇴하였다(『고려사절요』 권16, 고종 43년 10월).

사료 P群에서 볼 수 있듯이, 전술적인 면에서 별초군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소부대 단위의 기습공격에 있었다. 공격적 별동부대로서의 그러한 역할은 대몽항전 과정에서 가장 잘 드러났다. 이들은 內地 깊숙이 들어와 있는 적을 遊擊하는 병력이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기록상으로 별초군에 처음 선발된 인물은 최충현이었다. 그는 처음 별초군의 도령을 통해 군에서 성장하여 집권하였다. 집권후 최충현 정권은 거란의 침입과 같은 유사시에 별초군을 긴급히 편성하여 위기를 타개하였다. 이들 별초군은 최우대에 가서 공식적으로 편성되

었다. 그리고 몽고의 침략을 받으면서 별초군의 양상과 조직은 전국적으로 늘어났다. 그들은 용맹한 자들로 구성된 기동타격대와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들의 역할은 최충헌 정권은 물론 이후 집권한 최우, 최항, 최의에 이르기까지 이민족의 침략이 계속됨에 따라 그들에게 주어진 국가방어에 대한 책임도 커져갔던 것이다.

## 5. 맺 음 말

이제까지 최충헌정권의 군사적 기반을 경군·도방·별초군을 중심으로 살펴 보았다. 논의된 내용을 요약하여 맺는말로 삼고자 한다.

최충헌은 당시 고려의 국방에 대해 ‘國富·兵強’이란 생각을 갖고 있었다. 이를 위해서는 변방에 근무한 군인들에게 國이 富해지기 위해서는 역마를 번거롭게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 작은 일에 대해서는 兵이 스스로 해결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최충헌의 판단은 결국 주진의 장수들의 등을 돌리게 하여 국방상의 문제를 야기하기도 하였다. 최충헌이 의도적으로 관군이 약해지기를 원했거나 국방을 소홀히 하려했던 것은 아니었다. 거란이 고려를 침략했을 때 최충헌은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방어에 나섰다. 정숙침을 行營元帥로 삼아 5領, 즉 5천명의 軍馬를 거느리고 거란군을 막게 하였다. 도 후군병마사 김취려는 거란의 진영을 직공하여 승리를 거두기도 하였다. 평상시 3군체제에서 전시의 5군체제로 전환하여 특수부대들을 전쟁에 투입한 것이 대거란전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다. 이렇듯 최충헌은 경군 운용과 국방의 문제는 정권의 안정과도 불가분의 관계에 있었다는 점에서 매우 적극적이었다.

최충헌은 또 경주의 도처에 둔대를 축조하였다. 적에게 군사를 엄폐시키면서 적을 바라보면서 공격할 수 있는 시설물을 조성하였던 것이다. 또 그

는 신종 3년에 都房을 설치하였다. 불의의 변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이었다. 도방원은 文武官吏와 閑良에서부터 軍卒에 이르기까지 힘센 자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도방원들이 맡은 일은 최충헌의 신변 보호와 崔忠獻家를 宿衛하는 것이었다. 그 정확한 병력규모는 알 수 없으나, 3천여 명 이상이었다고 추정된다. 이러한 대규모의 사병집단의 인적자원은 경군에 속해 있던 군졸가운데서 힘세고 용감한 군사들을 차출하거나 募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최충헌이 관심을 가진 또 하나는 별초군의 양성에 있었다. 別抄軍이란, 그 명칭이 말해주듯이 특별히 뽑은 군사들로 구성된 병력을 뜻한다. 별초군은 명칭에서 나타나듯이 획일적 징집에 의해 이루어지는 보통병력이 아니라 선발 모집에 의해 확보되는 특수병력이었다. 그리고 선발 기준은 물론 전투원으로서의 용맹성에 있었다.

별초군의 유형에는 첫째는 기동타격대의 의미를 가진 별초군이 있었다. 이 별초군은 임시로 편성되었다가 임무 완수 후에 본래의 소속 부대로 돌아가는 형식으로 운용되었다고 이해된다. 둘째는 지역 명칭이 붙어있는 별초군이 있다. 慶州別抄軍 밖에도 都護別抄軍, 涓泰州別抄軍, 諸城別抄軍, 大府島別抄軍 등 지역에 편성되었었던 별초군이다. 셋째는 신분 명칭이 붙는 별초군도 있었다. 즉 고종19년 1월 몽고군이 침략했을 때 보이는 兩班別抄·奴軍雜類別抄가 그것이다. 이 별초군은 기본적으로 지역방위와 관련하여 편성 운용되는 부대였다.

이로 미루어 보아 최우가 설치했다는 야별초가 주축이 되어서 이루어진 삼별초는 경군과는 별도로 공식적으로 편성된 것으로 이해된다. 별초군이 중요성은 몽고의 침략이 계속됨에 따라 커져 갔다.